

# 서울시, 교육사다리 복원 '서울런' 시작 3년 계획 수립

서울시가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복원해 점점 커지는 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교육 플랫폼(서울런, Seoul Learn)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도입·확산·정착 단계를 거쳐 청소년을 비롯해 대상을 청년과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고, 서울시민의 생애주기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지원하는 에듀테크 기반의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완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본계획은 '교육 사다리 복원을 통한 계층이동 지원'이라는 비전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적 교육도시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3개 분야 8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도입 단계인 올해는 평생학습 포털과 연계해 '서울런' 사이트를 통해 학습자원에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 청소년(학교 밖·다문화가정 청소년 포함)을 대상으로 학습 콘텐츠 제공을 시작한다. 또 학습자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해 학습의 빈틈을 메우고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키우도록 지도한다.

내년부터는 교육 대상을 일반 청소년과 청년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첨단교육기술이 접목된 교육 플랫폼 구축도 시작한다. 2023년에는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모든 시민이 학습의 소비자이자 생산자로 참여해 놀이터처럼 즐기는 오픈 스페이스 평생학습 공간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온라인 콘텐츠 수강만으로는 부족한 학습의 빈틈은 '맞춤형 멘토링'

으로 촘촘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멘티의 신청에 따라 원하는 방식으로 온·오프라인 멘토링을 지원한다. 공부 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멘티에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 및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22년 정착단계에서는 일반 청소년·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해 교과 외 음악, 미술, 정보기술(IT) 등의 콘텐츠로 범위를 넓힌다. 이와 더불어 우수 기업의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제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 멘토링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에듀테크를 적용한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도 시작한다. 빅데이터 축적 및 AI 지능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브라우저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해 개인 맞춤형 교육 기반을 마련한다.

2023년 확산 단계에서는 구축된 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모든 시민에게 생애주기에 맞는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제공자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오픈 스페이스를 구축해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올해 '서울형 교육 플랫폼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대현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네트워크형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담아 서울시민의 생애주기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지원하는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⑤

